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정진욱

작년 수능 때 저는 평소 잘 봐오던 수학 영역과 과학 탐구 영역에서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나쁜 성적을 받았습니다. 원하던 대학의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했고, 정시로는 원하는 대학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절망하던 중, 공부했던 시간이 가까워져서라도 한 번 더 수험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수학원을 알아보던 중, 종로학원 본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종로학원의 명성을 듣고 이곳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미 자기만의 공부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공부방법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방법을 자세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수기에 쓰여 있는 방법에만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보시고 '아, 저건 받아들이만하다'라고 생각하여, 이를 통해 공부습관의 부적절한 점을 고치려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이 글의 쓰임새는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6월 모평)

이 기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빨리 지치고 의욕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능 이후에 안 쓰던 머리를 갑자기 쓴다고 두뇌회전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밍업 기간 (대략 2월~3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 불안함에 떨지 않고, 비장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다면 좋겠습니다.

1학기 때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집이나 외부교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로학원의 교재는 수십 년간의 내공이 쌓인 교재입니다. 학습하는데 있어 교재내용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실력이 늘 것을 확신합니다. 교재내용을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이든 기초, 즉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자기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습시간에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원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잘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 불안할 때 선생님과의 상담은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학기(6월 모평~9월 모평)

6월 모의평가를 본 직후, 시험을 못 봤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시험을 잘 봤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겨우 6월 모의평가일뿐입니다. 하지만 모의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알아내야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거나 도움을 받아 알아내어 더욱 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출문제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집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평가원이고, 평가원에서는 문제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수능을 대비해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혹은 학원에서 매달 보는 모의고사 이외의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봉투모의고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조언을 먼저 구한 뒤, 적절하지 않은 봉투모의고사라고 판단하시면 아예 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9월 모의평가를 겨냥해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수능이므로 너무 9월 모의평가에 치우친 상태로 공부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수능을 염두에 두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널(9월 모평~수능)

9월 모의평가로 인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9월 모의평가가 수능과 매우 유사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실제 수능 때 드러날 수 있는 약점을 미리 발견해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9월 모의평가가 이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내지는 것은 수능과 직결됩니다. 겨우 두 달을 못 견디고 8개월간의 노력을 날려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1학기 때 확실하게 잡아둔 개념을 잊지 않도록 개념에 신경 써야 합니다. 수능 대략 2주 전부터는 실전 감각이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풀 문제 중 다시 풀어보려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골고루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수능 직전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수능이 끝난 뒤 뼈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 해당 과목을 해당 시간대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능이 한창 진행될 시간대에는 잠을 피해야 합니다. 평소에 수능 시험장에 잘 도착하기 위한 시간대에 기상해서 수능 당일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항상 지켜야 할 것

1.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학원에 늦지 않도록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자습이 끝나고 집에 가서 일찍 자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 리듬을 망칠 것입니다.

2. 복습을 해야 합니다.

수업내용을 예습, 복습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습시간에 다음 수업 내용을 예습하고,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공부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 예습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예습을 하지 않더라도 복습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습을 통해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머리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